

“코로나 시대 전남으로 유학” 서울서 통했다

전남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인기

서울 학생 77명 유학 희망... 2차 모집 중 100명 달할 듯 농가와 함께 홈스테이형·지역센터 생활 지역센터형 선호 지역 특색 활용 생태교육 유리하고 개인별 맞춤교육 '최적'

환경친화적인 시골 학교에서의 교육이 서울에서도 통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남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건강과 힐링을 중시하는 삶이 확산하고, 특정 지역에서 몇 달간 살아가는 생활이 유행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에서 전남 농산어촌유학 희망자를 1차 모집한 결과, 77명이 전남에서의 유학

을 희망했다. 2차 모집이 진행중이어서 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유학 희망지는 전남 10개지역 22개 학교로 나타났다. 희망지 별로는 순천 36명, 영암 10명, 강진 8명, 곡성 8명, 화순 8명, 신안 2명, 해남 2명, 담양 1명, 장흥 1명, 진도 1명이었다.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초등학교 63명, 중학생 14명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이 유학을 신청했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유학을

희망한 학교와 해당 지역 농가를 방문한 뒤, 유학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전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학생들이 코로나19 위험이 덜한 농산어촌 학교에 다니면서 생태친화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유학을 추진했다.

농산어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산어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마을·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산어촌유학 거주형태는 해당 지역 농가에서 농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활동가가 있는 지역의 센터에서 생활하는 지역센터형으로 나뉜다. 가족체류형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농가에서 생활한다.

전남 18개 지역 초등학교 31개와 중학교 23개 등 총 58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가족체류형은

초등 4학년 이하 공립초 1~3학년까지 유학이 가능하며, 유학생의 형제·자매는 함께 유학할 수 있다.

농산어촌유학은 매년 3월1일 시작해 6개월 이상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 희망할 경우 6개월 학기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총 유학 기간은 초등학교는 6학년 졸업 때까지, 중학생은 2학년까지만 제한한다.

유학생의 학적은 전학으로 처리한다. 학생의 주소지를 농가와 센터로 이전해 전학 절차를 밟는다. 이후 전남 학교 소속 학생으로 편성돼 유학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서울 주소지의 변동이 없다면 농산어촌 유학 뒤 서울 원적교로 복귀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의 농산어촌학교는 지역별 특색을 활용한 생태 교육에 유리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 자연과 함께하는 최적의 교육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유·초교 47곳 학교 자율 감사제

광주교육청 자체감사 기본계획

광주교육청이 코로나19 시대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2021년도 자체감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는 “자율과 책임으로 청렴한 광주교육 구현”을 목표로 ▲교육활동 중심 학교 현장 감사 ▲감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략 감사 ▲신뢰받는 광주교육을 지원하는 청렴 감사 ▲교육 가족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감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특히 유·초등학교 4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자율 감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신년사에서 학교 자치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자율 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 자율감사제도란 학교 교직원들이 감사반 편성부터 결과에 대한 시정·개선까지 책임행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진정한 학교 자치의 완성이 될 것으로 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배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2021년 광주시교육청 감사 계획은 감사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적극 행정과 현장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모든 교직원에게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시민단체, 코로나에도 바꿨다

환경·교육·사회적경제 분야 등서 활발한 활동

■2020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주요 내용

에너지	에너지전환 위한 ‘빛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결성
교육	교육시민참여단 출범 ‘인권 존중 스크리미투 권고안’ 마련
사회적 경제	광주시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협의회
환경	장륙습지 국가습지 지정 성과·자전거도시 조성 역할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19일 광주NGO연대가 발간한 ‘2020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에는 광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환경·교육·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환경분야의 경우, 시민단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을 조직하고 활동에 나섰다. 지난 3월 지역 시민단체 105개가 참여한 가운데 탄소 독립을 선언하고 공식 출범했다.

단체들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경계안 채택과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또 지난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륙습지 관련 활동도 꾸준했다.

특히 도심 속 국가습지로 지정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어, 광주가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연대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결국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이끌었다.

또 광주를 자전거도시로 만들기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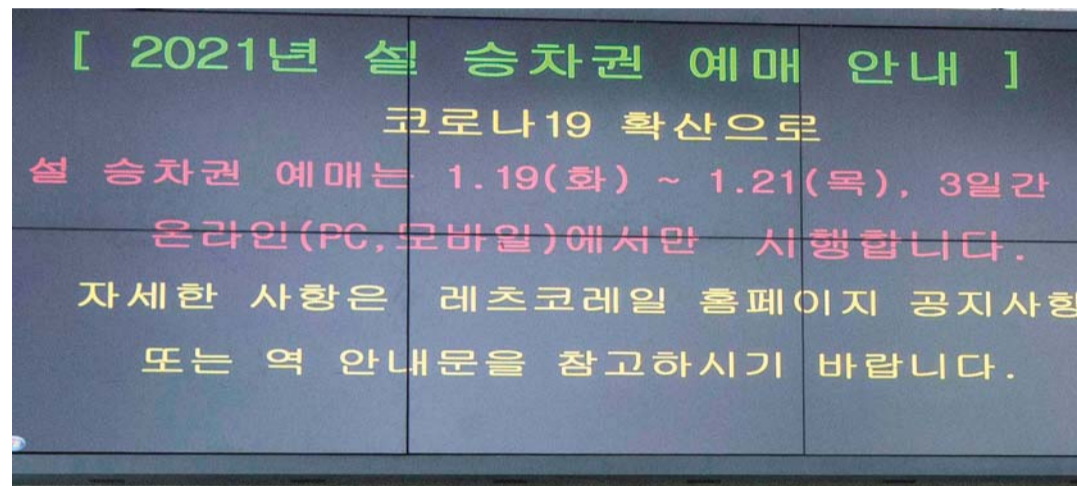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5·18 40주년 행사에도 집중됐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데 공을 들였다.

행사위 참여단체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전체로 제한해 확대했고, 시민참여사업단과 홍보사업단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풍부한 자료와 기념행사의 정보를 제공했다.

비록 코로나19 여파로 전야제를 비롯, 기획했던 많은 기념행사들이 취소됐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기념행사는 청년,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사회혁신·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도전을 전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설 승차권 현장판매 안합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9일 오전 광주중정역 전광판에 설 승차권 예매 안내가 표시돼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승차권은 온라인과 전화접수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원어민 강사와 화상 영어

광주 남구 초중생·일반인 대상 '사회적 배려' 수업료 지원

광주 남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관내 주민들이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화상영어 학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및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족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상영어 학습 지원사업이 펼쳐진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화상영어는 주 2회 또는 주 3회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수업 진행은 원어민 강사와 학생 간 1대 1일 학습 및 강사 1명과 학생 4명간 단체학습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주 2회시 1대 1인 기준으로 5만 9000원이며, 주 3회일 경우에는 8만 2000원이다.

단체 학습의 경우 주 2회에는 3만원, 주 3회는 3만 8000원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족의 학생에게는 매월 학습 수강료로 3만원이 지원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스포츠로 하나되는 아시아 KOREA, BEYOND MEETINGS

스포츠 MICE 도시 광주

희망 MICE 포럼 광주

사전 참가 신청 이벤트

사전 참가 신청자 선착순 400명에게 선물 지급!
네이버 포인트 천원권을 드립니다.

- 사전 참가신청 및 이벤트 기간 2021. 1. 15. ~ 1. 25
- 온라인 중계 2021. 1. 27. 14:00 ~ 17:30

○ 희망MICE포럼 홈페이지 www.hopemiceforum.org

○ 유튜브 채널 '광주희망마이스포럼'

○ 유튜브 채널 '광주관광TV'

▲사전 참가신청 GO▲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후원 한국PCO협회 kapco, TheKingPin, 광주광역시체육회 GJTO 광주관광재단